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시대를 초월하는 리베르소 스타일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밀라네즈 링크 브레이슬릿과 그레인 다이얼

주요 특징:

- **아이코닉한 회전형 케이스:** 50 개의 부품으로 구성, 두께 7.56mm
- **빈티지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다이얼:** 18K 핑크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및 케이스와 매치한 무광 골드 컬러 그레인 다이얼, 눈부신 광채로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아폴리케 인덱스
- **상징적인 무브먼트:** 핸드 와인딩 칼리버 822, 108 개의 부품, 42 시간 파워 리저브, 두께 2.93mm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아르데코 디자인의 다채로운 매력을 강조하며 새롭게 재해석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를 선보입니다. 밀라네즈 링크 브레이슬릿과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 진귀한 메탈 컬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레인 다이얼을 갖춘 새로운 모델은 빈티지한 매력과 자신감 넘치는 모던함을 발산합니다. 이는 90 년 전 첫 번째 리베르소가 출시된 이후 시작된 리베르소의 스타일 진화를 대담하게 드러냅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디자인 아이콘으로 진화하는 스타일 이야기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수십 년 동안 스타일과 기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었지만, 그 정체성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독특한 디자인은 리베르소의 변치 않는 매력으로,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밀라네즈 링크 브레이슬릿이 장착된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리베르소만의 독특한 적응력을 완벽하게 강조합니다. 스포티하거나 우아한 스타일, 모던하거나 빈티지한 스타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스타일 등 대조적인 특성을 균형 있게 매치하거나 다양한 스타일을 동시에 선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스타일에 빈티지한 감성을 더해주는 밀라네즈 링크와 골드 컬러 다이얼

밀라네즈 링크는 2 개의 금속 실을 서로 엮어 만든 조밀하고 평평한 금속 직조물로 만들어진 작은 링크가 두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제작하는 데는 무려 16m 나 되는 핑크 골드 실이 필요한데, 이를 조립하면 페자(pezza)라 불리는 직물과 같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면 공정이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링크를 정확한 치수에 맞춰 스탬핑하고 각 면을 링크별로 수공 납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핀이 없는 구조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밀라네즈 링크의 기원은 그 이름이 유래된 13 세기 밀라노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는 일종의 사슬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르네상스 시대의 금세공인들은 보석에 사용될 귀금속 버전을 제작했지만, 이 기술은 수 세기 동안 이탈리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20 년대 독일의 보석상들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면서 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트렌드가 그러하듯 한동안 인기가 줄어들었던 밀라네즈 링크는 1970 년대부터 워치 브레이슬릿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밀라네즈 브레이슬릿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매력 덕분에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핑크 골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의 링크 브레이슬릿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간결한 디자인과 전체 핑크 골드 컬러 팔레트에 빈티지한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슬림한 디자인은 7.56mm 두께의 리베르소 케이스의 매끈한 라인과 완벽하게 보완하며, 브레이슬릿이 일체형으로 보이도록 러그 부착부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는 여러 번의 스탬핑 작업을 통해 섬세한 텍스처 마감이 돋보이는 골드 컬러 다이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미묘한 그레인 다이얼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링크의 세련된 광택과 대조를 이룹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통합 버클의 폴리싱 마감이 링크의 반짝이는 표면과 어우러져, 브레이슬릿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케이스를 뒤집으면 나타나는 케이스백은 그대로 비워 둘 수도 있고, 인그레이빙 또는 래커 장식으로 개성을 더할 수 있어 주얼리 같은 매력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브레이슬릿은 조절 가능한 슬라이딩 클래스프 덕분에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핑크 골드 소재의 무게감으로 인해 아름다운 균형을 맞춰 줍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시그니처 아이콘은 1931 년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며, 시간은 숫자가 아닌 아폴리케 인덱스로 표시됩니다. 길고 슬림한 형태와 각면 처리한 옆면은 시각적 깊이를 더하며 도피네 핸즈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6 시 방향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원형 트랙은 다이얼 및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822 로 구동됩니다.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제작된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에서 자체 설계 및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역사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세련미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우아함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케이스: 핑크 골드(18K, 750/1000)

크기: 45.6 x 27.4mm, 두께 7.56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골드 컬러 그레인

방수: 3 바(bar)

스트랩: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밀라네즈 링크 브레이슬릿

버클: 통합된 슬라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713216J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널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